

광주·전남 文·安 경쟁적 지지선언...뜨거운 세불리기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여군 예비역 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한 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26개 대학교수 272명 중 대표 교수들이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광주문화예술인 231명
민주화운동 참여 50대 1천명
16개 노조·장애인단체 등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에서 세 확산을 과시하는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문화예술인 231명은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예술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인 토양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며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는 문화예술분야 정책 공약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그는 현장 예술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정책해 수용하는 등 문화예술을 잘 이해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남 오후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30여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50대 유권자 1000명과 예비역 여군 9명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직군의 중견사회인 1000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정권교체는 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87년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권교체야말로 민족사의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면서 “흐트러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갈 소신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주 50세대특별위원회는 “19대 대선의 향방은 50대의 지지에 달려있다. 주로 50대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지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여군 지지선언에는 헬기 조종사 1세대인 피우진 육군 항공 중령과 최초의 여성 장군인 양승숙 국군 간호중장 등이 참여했다. 26일에는 한국노총 광주본부 16개 노동조합과 광주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의 문재인 지지선언이 예정돼 있다.

■ 국민의당

26개 대학교수 272명
평당원·유권자 2300명
의사회 의사 139명 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평 조선대 명예교수 등 이 지역 26개 대학교수 272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야말로 국민을 통합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나라를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지도자”라고 강

조했다. 이어 “사회를 바라보는 참 지식인의 움직임이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더 많은 지역 지식인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평당원과 일반 지지자들로 구성된 정치혁신국민본부(정혁본)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 2300여명이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 등 전직 외교관 50명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관은 건전하고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외교현안과 안보위기를 극복할 자

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이번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후보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우리 스스로 안보역량을 강화한다는 안보관이 확고하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찬성하는 용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 전 수석을 비롯해 조규형 전 주브라질 대사, 김성열 전 주리비아 대사, 박승무 전 주가나 대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26일 오후에는 전국 시·도 의사회와 전국 의사총연합 소속 의사 139명이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헌법가치로 계승...지역공약 내년 예산 최우선 반영”

■ 민주 조직특보단장 전해철 최고위원

“文, 호남의 한 풀어줄 유일한 후보...압도적 지지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25일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약 실현의 지를 강조하기 위해 윤호중 당 정책본부장과 백재현 국가재정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함께 광주를 찾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 30여명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호남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호남정신의 명맥을 이어온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전남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현 계획과 의지는.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의견을 들었다. 이를 25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발표된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최우선



주화운동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광주정신을 반드시 잊었다는 것이다.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 문 후보는 광주지역 인사들과 그동안 많은 소통을 했다. -호남권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보수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면서 이에 실망한 호남 표심이 이탈해 문재인 후보의 우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호남은 정권교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누가 더 정권교체에 적합한가 따져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해왔다. 그런 만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실망과 함께 문 후보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힘을 실어주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호남 발전을 위한 더 좋은 공약과 실천 의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런 추세가 선거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호남에서 총력을 펼치고 있는데 호남 민심 반응은. ▲이른바 ‘반문(反文) 정서’라고 하는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민의 당에 의해 지역에 일정 부분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내 호남지역 현역 의원이 많지 않아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지역과 소통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문 후보가 지닌 정책적 능력, 도덕성, 호남에 대한 진정성 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 때도 민주당이 절대아니다는 것 보다는 반성하고 수권정당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와 질책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과 문 후보가 더 낮은 자세로 호남에 다가가고, 진정성을 보임에 따라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고 늘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결에서 지켜본 문재인 후보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문 후보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다. 문 후보가 대

령이 되면 5·18 민주화정신을 제7공화국 헌법에 새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 마음 그대로 집권 후 진정성 있게 호남을 챙길 후보이자, 호남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호남의 한을 풀어 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 내 ‘패권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천과정이나 당 운영 과정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패권정치를 한 적이 없다. 시스템 공천 제도화를 통해 작년 공천심사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당헌당규에도 반영한 바 있다. 패권정치를 없애는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이 제도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공천규정이 다 만들어져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된다. 이같은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제도화되면 계파가 생기는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